

7. 문화적응 문제 Acculturation Problem (재입국 전환 The Reentry Transition)

진단을 위한 특징 Diagnostic Features

해외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재입국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역문화 충격’이라고 불리는 문화적응 문제를 겪게 된다. 선교지 문화 속에 있는 동안, 그들 자신도 변했고 고국 문화도 변했다. 그 결과 그들은 고국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일상적 일들, 예상 가능한 사건, 놀랄 필요가 없는 일에 편안함 대신에, 혼란, 역겨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자기 본능을 신뢰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보다 상처 받기 쉽고,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종종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국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단 말인가?

그러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화를 내게 되고, 화는 곧 분노나 비통함으로 바뀐다. 소외감을 느끼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될지도 모른다. 좌절한 나머지 사람을 멀리하고, 심지어 가족도 멀리하고, 고립되어, 외롭게 될 것이다. 쉽게 기분이 상하고, 고국 문화를 비판하며, 우울해 한다. 고국 문화가 위대한 물질주의가 되버린 것을 보면서, 특히 ‘종교, 사용 가능한’ 물건이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위대한 낭비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 이런 감정은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면 더 클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덜 할 것이다.

크리스찬 선교사들은 고국의 교회에, 심지어 ‘본교회’에서조차 환영을 느낄 수 있다. 한 복귀 선교사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고, 심지어 그를 인식하지도 못한다”라고 한 것처럼, 다른 예배 형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문하는 교회에서는 영성이 부족함을 느낀다. 선교 현지인들을 위한 간절한 도움 요청에 대해 반응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교회가 대단히 무관심하다고 인식할지도 모른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친숙한 얼굴을 보게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더이상 친숙하지 않다. 자신들도 변했고, 그들이 알던 사람들도 변했다. ‘익숙했던’ 장소도 더 이상 익숙치 않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돌아왔지만, 거기 사람들도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공통 화제는 거의 없고, 그로 인해 더 이상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다. 고국의 사람들은 아주 편협된 시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을 적합한 곳을 못찾고 일시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고 느낀다. 개인을 중시하는 고국 문화로 돌아오면, 선교지에 있을 때 자국민 공동체의 친밀함을 그리워한다. 제스처나 다른 “신호(signals)”들을 오해하고 남들이 찾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이 관계를 먼저 맺기 시작해야 하는 주변인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외로움과 불편함은 종종 통찰력의 시작이고 개인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의미로는 고국문화에서도, 선교지 문화에서도 편안하지 않은 일시적인 노숙자(homeless)와 같은 문화 혼종(hybrids)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타문화 경험을 바른 견지에서 보고, 그것이 자신의 전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게될 때,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가지게 되고, 고국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관련된 특징 및 문제들 Associated Features and Problems

몇몇 다른 문제들이 문화적응 문제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일의 본질이 고국으로의 복귀와 함께 변할 수 있으므로 V62.2 직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일에 대해 보안성은 증가하지만, 중요성은 감소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자신에게 책임을 맡겨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 기관에 섞여서 일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비슷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도 달라져야한다. 홈스쿨이나 소규모 학교가 아닌 대규모 학교로 바뀌고, 그 결과 V62.3 학업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V-code(행동 건강상태 분류 코드)와 관련된 것들이지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V62.89의 신앙 또는 영적 문제에 걸릴 수 있다. 신앙이 있어도 일상적인 분노, 냉소,

우울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비록 아무 것도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영적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에서 후원금 모금 사역으로 업무가 변경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을 하는게 아닌가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명심할 것은 이것이 V-code 와 관련된 것이지,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불안이나 우울이 문화적응 문제와 관련되어 장시간 지속되면 300.02 일반적 불안 장애나 296.2 심각한 우울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신적 장애이며,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 개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특정 문화, 나이, 성별 특징 Specific Culture, Age, and Gender Features

자녀들은 부모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대체로 이들은 아주 빠르게 적응한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빠르게 적응한다. 며칠 또는 몇 주안에 새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행복하게 논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0 대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극히 중요하다. 10 대 사회에서 갑자기 또래 친구들을 떠나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는 시도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강제로 하게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는 여성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선교 현지에서 긴밀히 맺어진 친구들을 포기하고 고국에서 마음에 맞는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고국에서는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남성들은 직업이 변함에 따라 정체성을 상실하기 더 쉽다. 선교지에서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부터 건축,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참여했다. 고국 사역이란 종종 선교비 모금을 위한 방문이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별 차이가 없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그는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고국에 돌아와서는 만일 그가 거기 없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갈수 있을 것이다.

가족 패턴 Familial Pattern

선교사 자녀에게 소위 ‘재입국’은 재입국이 아니고, 실제로는 ‘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부모가 살았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들은 실제로 거기서 어느 기간동안 살지는 않았었다. 그들은 조부모나 다른 친척을 잠깐 방문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 고국이란 부모가 선교지라고 부르는 나라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문화적응 문제는 입국이지 재입국이 아니다.

널리 퍼짐 Prevalence

재입국시 겪게 되는 문화적응 문제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약 2/3 의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을 볼 때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3 의 사람들은 기술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는 것 이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재입국을 하게된다. 사람들은 보통 ‘문화 충격’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진 것 때문에 선교지에 들어갈 때 문화적응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고국 문화에 돌아왔을 때 ‘역문화충격(reverse culture shock)’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며 이는 종종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

문화적응 문제는 문화가 바뀔 때마다 발생한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을 계속하게 되면 문화적응이 점점 더 쉬워진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어떻게 적응할지 알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재입국할 때 문화적응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도 선교지에 자녀나 손주들을 남겨둘 때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다.

과정 Course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전형적인 3 단계-떠남, '중간 기간,' 들어감-가 있다. '떠남(leaving)'의 단계는 실제 떠나기 몇 주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시작되는데, 그 때 선교사들은 '고국'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현지에서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환송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인지를 받게 된다. 살았던 공간과 애완동물과의 작별인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업무로부터 철수하고; 일반적으로 사역지에서의 시간에 대해 종료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그들은 과거로부터 철수하고, 관심을 미래로 돌린다. 이미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감이나 분노 또는 슬픔을 느낄 수 있다.

'중간 기간(in between)' 단계는 선교사들이 공항으로 출발할 때 시작되고, 가방의 짐을 풀 때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풀 때 끝이 난다. 이 단계 동안에는 지위도, 체계도, 심지어 열쇠도 없다. 이 혼란의 시간에 그들은 문제를 과장하고, 감정에 압도되고, 고립을 느낄 수 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고, 최근에 그들이 겪은 손실에 대해 슬퍼할 수 있다.

'들어감(entering)'의 단계는 선교사들이 마음의 짐을 풀고, 고국 문화에 다시 접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다소 피상적이고 임시적인 관계를 맺는다. 재입국하는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못 해석하여 반응을 적절히 못하고, 실수하기도 한다. 상처받기 쉽고, 두려움을 느끼며, 쉽게 화를 내기도 한다.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몇몇은 재입국 직후에 모든 것을 장미빛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신혼 여행 같은 시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후에 다시 모든 것을 녹색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고국에 있는 물질주의와 천박함을 보게 되면서 환멸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화도 내고, 비판적이며, 씁쓸해하고, 고독하고, 두렵고, 고립되기도 한다.

이 들어감의 단계는 몇 달간만, 혹은 1 년(온전한 일년 주기)동안 지속될 수 있고, 또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이 단계를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인생 동안 환멸을 느끼며 살 수 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은퇴 후에 그들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남은 여생을 거기에서 보내기도 한다.

선교사들이 아래와 같은 일을 할 때, 고국에 완전히 재입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화장실에 휴지를 더 이상 갖고 가지 않는다.
- 샤워하다가 잘못하여 물을 좀 먹게 되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 상처를 먹을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 물에 얼음을 넣어서 마신다.
- 고속도로 길가에서 파는 체리와 포도를 사먹는다.
- 코풀 때 티슈를 사용한다

문화적응 문제는 정신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슷한 반응, 사고, 느낌을 겪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정상적인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내용들이 이 책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DSM-IV 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 범주(문화적응 문제)는 임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초점이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일 때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면 이민 후)."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